

2024년 11월 24일

교토교구의 신자분들께

2025년 회년 '희망의 순례자'를 맞이함에 있어

가톨릭 교토교구 주교

바오로 오오츠카 요시나오

회년(Jubilee Year)의 은총

가톨릭 회년의 기원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회년'에 있으며 유다교에서 50년마다 토지 반환과 노예 해방이 이뤄지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 1300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첫 번째 회년을 제정했습니다. 그 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생애에 한 번이라도 회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회년은 25년마다 기념하게 되어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의 시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회년은 본래 회심을 촉구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교회는 회년을 통해 죄의 용서에 따른 보속의 면제인 '대사'를 풍성하게 제공해왔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순례나 기도를 통해 신앙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에서 기념하는 회년은 신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일치를 촉진하는 기회도 됩니다.

2025년 회년 공식 선포의 대척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오는 2025년 통상적인 회년의 메시지를 '희망의 순례자'로 삼아 2024년 5월 9일 회년 공식 선포의 대척서를 발표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간에 있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라는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머릿말에서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표시에서 사도 바오로는 희망의 표징으로 로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격려를 줍니다...나는 회년을 보내기 위해 로마를 찾는 사람들과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마을에 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부분 교회에서 회년을 기념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든 희망의 순례자들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년이 구원의 '문'인 주 예수

님(요한 10, 7. 9 참조)과의 생생한 개인적 만남의 때가 되기를. 교회는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1티모 1, 1)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을 되새기고 수감자에게는 희망을, 병자에게는 위로를, 청소년에게는 버팀목을, 난민·이민에게는 안전과 교육의 기회를, 노인에게는 다른 세대와의 유대와 이해를,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표징

희년 로고의 네 인물은 지구의 사방에서 모여든 전 인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 겨안는 모습은 모든 백성을 연결시키는 연대와 우애를 상징합니다. 선두의 인물은 십자가, 즉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발밑에는 인생의 여정에 맞서는 어려움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데, 길게 뻗은 십자가가 희망의 상징인 ‘닷’이 되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는 순례자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희년을 ‘시대의 표징’을 읽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우리가 악과 폭력에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선에 눈을 돌리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대의 표징’을 ‘희망의 표징’으로 바꾸고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의 소망을 안고 나아가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전쟁과 분쟁이 종결되고 평화가 이루어져 돈을 무기 조달과 전쟁비용에 쓰지 않고 기아를 없애기 위한 세계 기금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동시에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채무 탕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아’(히브 6. 19)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을 결코 잃지 않고 하느님 안에 기댈 곳을 찾으면서 그것을 굳건히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개막과 성문(Porta Santa)

희년에는 순례자들이 로마의 교황 직속 4대성당을 방문하여, 평소에는 닫혀있지만 희년에만 열리는 ‘성문(聖門)’을 통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통하는 문이며, 하느님 아버지를 향한 ‘길·진리·생명’이라는 가르침에서 비롯됩니다. 희년에 ‘성스러운 문’을 지나는 순례자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예

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떠올립니다.

2024년 12월 24일(화) 주님 성탄 대축일 전날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문이 교황에 의해 열리며 희년이 개막됩니다. 이어서 2024년 12월 29일(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라테란의 성 요한 대성당에서 성문이 열립니다. 교토교구에서는 이날 대칙서의 지시에 따라 주교좌 성당인 카와라마치 성당에서 주교가 희년 개막 미사를 올립니다. 2025년 1월 1일(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성 마리아 대성당, 1월 5일(일) 주님 공현 대축일에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의 성문이 각각 열립니다.

폐막에 대해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제외한 3개의 대성당의 성문이 2025년 12월 28일(일)에 닫히고, 이 날에 부분 교회에서는 희년이 종료됩니다. 이어서 2026년 1월 6일(화) 주님 공현 대축일에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문이 닫히고 2025년 희년은 폐막합니다.

교구의 순례지

순례는 희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교황은 다가오는 희년에도 '희망의 순례자들'이 전통적인 혹은 이 시대의 순례를 통해 희년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토교구의 순례지는, 교토 주교좌 성당인 「가와라마치 성당」, 「미야즈 성당」, 「후쿠치야마 성당」, 「나라 성당」, 「오즈 성당」, 「스즈카 성당」, 「윗카이치 성당」입니다.

질병이나 고령으로 순례가 어려운 분은 성체조배나 미사, 보편지향 기도회 직접 참여하거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참여함으로써 희년의 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

우리는 인간적인 나약함에서 죄를 짓고 하느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죄의 용서로 주어집니다. 죄의 용서는 보통 '고해성사'를 통해서 주어지지만, 죄의 상처(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사제가 권하는 특정의 기도나 선한 행동과 같은 '보속'이 필요합니다. 대사란 보속을 면제하는 것으로 죄의 용서가 아니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큰 죄가 없는, 하느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대사를 받고 싶다는 의지로 순례를 하고, 고해성사를 받고, 미사에 참석하고, 신앙고백 외치며, 교황의 뜻이나 교회, 세계의 선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대사는 자신을 위해

서만이 아니라 대속의 형식으로 언제든지 죽은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대속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의 행위로 권해지고 있습니다.

맺음말

2025년의 희년을 향해 교황 프란치스코는 ‘희망의 순례자’로 걸어가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토교구의 우리들도 신앙과 희망을 새롭게 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기회에, 개인에 있어서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 희망을 가지고, 과거의 잘못을 서로 용서하고, 시노드의 정신으로 서로 지탱하면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용기와 힘을 얻읍시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가톨릭 중앙 협의회와 교토교구의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